

종합·해설

鄭·孫·李 “지원세력 광주·전남 집결하라”

신당 후보 경선 조직 총동원령 ... 후유증 예고

국민경선 취지 사라지고 구태정치 재연 조심

대통합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대선 후보 경선이 대규모로 조직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적 감동보다는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당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쉽과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각 후보들의 무한 이기주의가 맞물리면서 민주의 상징인 ‘광주 정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석 이후 오는 29일 치러지는 광주·전남 경선은 전체 판도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된다. 이 점에서 모든 캠프에 총 동원령이 떨어졌다.

광주·전남에서 큰 표 차이를 패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은 물론 외곽 지지 조직 등 활동 가능한 모든 지원 세력은 모두 광주와 전남으로 집결하라는 것이다.

우선 정동영 후보 캠프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은 19일 광주에서 선거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자회견과 지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한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정통들(정동영

과 통하는 사람들) 모임 등 외곽 지지 조직들도 광주와 전남에 집결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후보 캠프도 19일 후보 특보단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광주를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현장 조직을 총총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진평화연대’ 등 손 후보 지지 인사들의 광주·전남 방문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해찬 후보 소속 의원 10여명은 오는 20일 이 후보와 함께 광주를 방문, 호남 공약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참정포럼과 노사모 조직도 이 후보 지지를 위해, 대거 광주와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각 후보 캠프에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조직 선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각 후보 캠프에서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놓고 선거인단 선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각 후보 캠프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조직 선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각 후보 캠프에서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놓고 선거인단 선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추천한 인사들로 하여금 지지 성향 투표자들을 선별해 경선 참여와 후보 지지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캠프에서는 경선 참여에 미온적이거나 주저하는 일부 선거인들에 대해 차량을 제



현대전화 투표 이렇게 합니다. 대통합민주당 김효석(왼쪽에서 두번째) 원내 대표와 지방론(첫번째) 국민경선위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현대전화 투표방법에 대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 경선장까지 실어 나르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전국 각 지역 캠프에 ‘승용차 동원령’도 내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는 29일 광주·전남 경선장에서는 각 후보 캠프에서 지지 선거인단을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동원한 승용차들이 몰려들 것”이라며 “광주·전남 경선도 결국 조직 선거의 격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후보 캠프에서는 상대 후보의 약점에 대한 물밑 여론 물이에 나서는가 하면 마타도어성 발언도 은근히 흘러고 있다.

실제로 모 후보 측 핵심 인사는 한나라당 시절 손 후보의 발언을 보도한 일부 신문을 복사, 언론에 제공하면서 정세성 논란의 확산을 피하는가 하면 또 다른 후보 측에서는 경쟁 후보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 등을 제시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7대 대선 범여 경선 현장

손학규 “광주는 위기 때마다 현명한 결단”

○대통합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18일 오후 광주 총장로에서 500여명의 지지자들과 ‘번개미팅’을 갖고 “광주는 역사의 위기 때마다 늘 현명한 결단을 내려 우리 역사를 진보시켰다”며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승리를 결정지었듯이 이번에는 손학규의 승리를 결정지어달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23일부터 광주·전남 경선이 개최되는 29일까지 아예 광주·전남에 상주하시피 하면서 캠프를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이때 앞서 이날 광주·전남지역 대학 이공계와 경영계 연구 모임인 ‘광주·전남 미래신산업 비전포럼’ 소속 교수 119명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시대의 창조적 비전과 글로벌 추진력을 갖춘 손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대통합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총장로 한 호텔 프장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번개 미팅’을 갖고 있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김민석 광주서 출판기념 사인회

○민주당 김민석 대선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광주 영종로에서 자신의 저서 ‘위대한 텃밭포인트 :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에 달렸다’ 출판 기념 사인회를 가졌다. ‘일자리 500만개 창출’과 ‘새만금 지식·문화 대특구’ ‘남·북한 국가연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 후보는 이날 “위대한 텃밭 포인트는 우리 모두가 원대한 꿈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위해 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창조적인 국가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상천 “범여 후보 단일화 반드시 필요”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8일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하려면 국정 실패에서 자유로운 민주당 후보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전남대의회 민주시민교섭단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대통합민주당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은 한나라당을 뛰쳐나와 2명은 국정실패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어 한나라당과 겨루기에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중산층 강국’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에게 다가가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숙기자 who@kwangju.co.kr

鄭·孫·李 네거티브 공방 격화

어제 대선 정책토론회서

동원 선거·정체성 설전

대통합민주당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는 18일 오후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각기 분선경쟁력의 우위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격돌했다.

기자들은 추석연휴 후 치러질 영·호남지역 4연전을 앞둔 기세에 차원에서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네거티브 공세를 펴며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특히 초반전에서 승기를 잡은 정동영 후보를 겨냥해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조직·동원선거’ 논란을 제기하면서 협공을 가했고, 이에 정 후보는 “자발적 서포터스들을 조직선거로 매도하느냐”고 적극 반박했다.

손 후보는 “지금까지 치러진 경선은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선거가 보다는 당의장 선거이자 조직에 의한 동원선거”라며 “한 신문을 보면 저는 우직한 소이고 정동영 후보는 실리와 지략의 조조가 연상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손·이 후보의 조직·동원선거 문제제기에 대해 “돈과 상관없는 자발적 서포터스들”이라며 “5년간 경선을 지켜낸 정동영을 부두켜 안은 서포터스들이 조직선거라고 할 수 있느냐”며 “그렇다면 노사모가 조직이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해 “이번 경선은 대리접수로 인해 문제가 많이 생겼다”며 “노대통령의 경우처럼 자기가 접수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나온다”고 지적하고 “조직동원이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잘못된 선거제도도 경선을 하고 있어 국민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손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경선을 안하고 탈당해서 나왔는데 경선불복을 안했는지 몰라도 정당정치를 육성하는 범법자에 이르는 행위를 했다”며 “손 후보는 광주 문제에 대해 한마디 말로 사과하고 지나갈 수 없고, 더구나 광주에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정체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를 놓고 서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충청지역 표심 공략에 열을 올렸다. /연합뉴스

靑 “선거인단 명의도용 미스터리”

천호선 대변인 “당에 조사하고 판단할 문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노무현 대통령 이름에 이어 차의환 청와대 혁신관리부수석 등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대통합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해 “저희도 미스터리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반응을 나타내며 “당적을 가진 적이 있는 정칙권 출신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공무원 출신인) 차 수석은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데... 그 부분은 궁금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안은 당이 우선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 자체 조사 용의를 묻는 질문에 “당에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앞서 나갈 필

산행안내

9월 19일(수) ▲정독산악회 경남 거창군 북상면 부동산 9월19일(수) 08시 광주교원공체회관(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T.011-616-5917 ▲광주아대산악회 전북 영실 백련산 9월19일(수) 08시 동아병원(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다음카페:아대산악회 T.011-609-0588

9월 20일(목) ▲광주한국산악회 지리산 오식봉 9월20일(목) 07시50분 연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 출발 ※예약바람 T.011-615-2279 ▲가고산악회 화미 금오산 9월20일(목) 08시 광주역(선월빌딩해대마트경유) 출발 ※다음카페:광주가고산악회 T.011-9612-5191, 011-629-2678

9월 22일(토) ▲광주도요산악회 고흥 팔영산 9월22일(토) 08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http://cafe.daum.net/gwanjutoyo T.011-608-4267, 011-634-2044 ▲광주젊은산악회 지리산 9월22일(토) 04시 칠담(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http://cafe.daum.net/youngmountain T.011-611-4257 ▲나시모산악회 담양 북대산 9월22일(토) 08시 동광주 홈플러스 앞 출발 http://cafe.daum.net/gwnasamo T.062-266-7223, 011-621-7201

9월 23일(일) ▲광주비버리산악회 전남 무안 청계 승려산 노송봉 9월23일(일) 08시 광주역 ※다음카페:광주비버리 T.011-640-0871

9월 29일(토) ▲광주메아리산악회 삼척 영남산 용소굴 무막2연산행 및 환산굴 대금굴관광 9월29일(토) 21시 시청앞 출발 http://cafe.daum.net/mkyw T.011-601-2891 ▲무등도요산악회 경남 민양 가지산 9월29일(토) 06시30분 시청(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http://cafe.daum.net/mudeung1028 T.010-9942-8000 ▲광주도요산악회 장수 정안산 9월29일(토) 08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http://cafe.daum.net/gwanjutoyo T.011-608-4267, 011-634-2044

9월 30일(일) ▲광주신가족 함양 삼봉산, 금대산 9월30일(일) 08시 대인광장(삼천홀플러즈경유) 출발 T.019-499-1405, 011-9608-3357 ▲요산회 충북 괴산 칠보산 9월30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6-611-1509 ▲광주자연보호산악회 약산 삼문산 9월30일(일) 07시 무등경기장 출발 http://cafe.daum.net/JATNSAN T.011-666-3291

10월 1일(일) ▲광주명문산악회 경북 상주시 속리산 봉황 10월1일(일) 08시 광주역(문예회관후문경유) 출발 http://cafe.daum.net/ppoppo555 T.011-602-3709, 011-633-9248

10월 6일(토) ▲다음카페:(사)요산요수산악회 선악산 대청봉 무막2연산행 10월6일(토) 21시 전대병원웅남삼거리(지하철3번출구) 출발 http://cafe.daum.net/ajwhitetiger T.010-9445-9844 ▲대한산악연맹 광주일파인 클럽 철야산 무막2일산행 10월6일(토) 21시 문예회관후문 출발 http://cafe.daum.net/ajwhitetiger T.010-9445-9844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강도와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진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돌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지향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처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급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B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위 무등고사학원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추석에 가족친지들이 모인자리에 마술을 연출해 보세요,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각종행사, 마술 출성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향행사, 마유회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당뇨병

영터리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다

- 당뇨가 치료되지 않는 것은 파괴된 체장 내 “랑게르한스(Langerhans:랑게르한스)라는 세포가 발견한 물질”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 “랑게르한스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적의 물질은 없는가?

※문의하신 모든 분들께 세계가 깜짝 놀랄 기적의 물질 일명 “천지영천수”에 대한 소책자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안내서 신청 문의 ☎

070-7012-0246